



알버타저널 발행인 안길웅

발행인의 데스크



“죄수들보다 더 못해요” 정서적으로 황폐화되는 양로원 노인들

해결책없는 온 세계의 숙제

‘노인들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몇 시인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낮이 몇 시인지 알 수 없어서 정오에 밤잠을 자고 있었다.’

온타리오의 장기요양시설 거주자들은 COVID-19가 독립적인 조사에 의해 야기된 정서적 황폐화를 하나하나 묘사하며, 코로나-19 제2의 물결이 오기 전에 정부가 고립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외롭고, 우울하고, 재갈을 물리고, 갇혀있다. 주민들이 비디오 컨퍼런스로 장기요양 코로나-19 위원회에 전염병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단어들이다.

토론토에 있는 장기요양시설에 살고 있는 버지니아 파라가씨는 “우리들을 TV에서 본다면, 무시당하고, 불결하며, 굶주림에 시달리는 작은 동물들 중 하나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이제 우리 노인들과 인류를 위해 눈물을 흘린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본 일상을 뒤엎고 현재까지 1,900명 이상의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심각한 직원 부족, 붕괴된 인프라, 그리고 감독 부족이 그러한 시설들에서 대규모 COVID-19 발병의 원인이 된 요인들 중 일부였다.

프랭크 마로코 전 삼급법원 판사가 이끄는 위원회는 장기요양시스템에서 COVID-19가 어떻게 확산됐는지 조사하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주 증언한 주민 중 한 명인 배리 히클링은 오래 지속되는 폐쇄의 영향에 대해 말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학습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뼈 아픈 교훈이 가시지 않길 바란다. 트라우마는 지속될 것입니다.”

장기요양시설에 무언가를 들어올 수 있는 또 다른 물결이나 잠재적 불안이 노인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온타리오주 원저에 있는 장기요양시설에 살고 있는 히클링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가족도 친구



도 없이 혼자 고립돼 있다”고 말했다.

“내 인생에서 다시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빌어먹을, 또 다른 물결이 일면 그것을 적절히,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를 기도하고 희망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유행으로 수개월 동안 방문제한을 시행한 것을 완화했으나 많은 가정들이 폐쇄 조치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는 최근 COVID-19 핫플레이스 내 주택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해 방문객을 직원, 필수 방문자, 간병인 등으로 제한했다.

온타리오주 케스윅 장기요양시설에 살고 있는 캐롤린 스노우는 고립된 것이 감옥에서 사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포로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겁니다.”

그녀는 또 다른 장기요양 시설에 머물고 있던 시누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사망했다고 말했다.

스노우는 “괜찮겠지 하는 것에서 망연자실하는 것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또한 요양시설 안의 난해한 문제들을 묘사했다.

온타리오주 뉴마켓의 한 시설에 사는 샤론 쿡 온타리오 주민협의회 회장은 “주민들

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고 방에서 혼자 녹녹한 식사를 하고 끝없이 텔레비전을 시청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활동과 자극의 부족으로 주민들은 밤낮을 모르고 잠을 잔다고 말했다.

몇몇 주민들은 그들이 최소한의 정보나 집으로부터의 통신으로 부터 차단되어 있다고 말했다.

외부와의 통신공백으로 양로원에 고립되어 지내는 취약계층은 환란에 빠지고 있다.

“양로원 노인들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몇 시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들은 낮이 몇 시인지 알 수 없어서 정오에 밤잠을 자고 어요.”라고 어느 간호사가 덧붙였다.

히클링은 직원 부족이 두 번의 약물 혼동으로 이어졌고, 만약 그가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엄청난 고통에 시달

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로코는 주민들에게 양로원 내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요청했다.

히클링은 양로원 직원들 먼저 돌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면 노인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다고 한다.

“만약 그들이 혈액테스트나 면봉으로 여러가지 보건 테스트를 앓는다면 우리도 그런 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히클링은 말했다.

양로원 노인들은 직원들이 면봉같은 검사 도구를 꺼내는 것을 매우 무서워 한다고 말했다.

캘거리 양로원의 실태도 캐나다 다른 도시의 양로원의 시설과 보살핌이 더 좋지

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로원에 들어간지 얼마되지 않아 급속도로 건강과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해 본 가족들 이외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래도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 주일학교에 다닐 법한 어린 아들, 딸들을 데리고 매주 양로원을 방문하여 엄마, 아빠가 연주하는 악기에 맞춰 교회 찬송가를 불러주는 가족들도 있는가 하면 생뚱맞게 양중의 큰 개들을 여러마리 데리고 와서 노인들로 하여금 쓰다듬을 수 있도록 도와 주기도 하고 함께 놀게 해드리는데 청년들도 볼 수 있다. 어느 동양계 교회의 같은 구역원들인지 아무 것도 모르는 인지 능력이 거의 상실된 옛 구역원이었던 노인을 월체에 모셔 놓고 큰 소리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쳐다보는 간호사 혹은 의료진들은 어떤 상념에 빠져서 저렇게 쳐다 보고 있을까?

안 양로원으로 입주한다는 것도 능사는 아닐 것이다. 여기에 바로 우리 동포 신앙단체들이 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각 소속된 교회의 교우들이 양로원에 계신 소위 연로하신 분들을 자주 방문해 드리는 일이다. 양로원에 계신 캐나다인 노인분들은 1년이다 가도록 방문객이 한 사람도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꼭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노인분이 어느 양로원에 계셔서가 아니라 바뀌 말한다면 틈나는대로 자주 찾아 봐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의 리더들이 앞장서서 양로원에 계신 한국말하시는 분들을 시간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다. 함께 따라 나서는 교우들이 줄을 선다는 것은 명약 관화한 일이다.

사실 오늘 공유하는 이 기사도 어느 독자가 보내 온 것이다. 양로원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가족들의 심정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소외 계층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너무 근시안적일까?

캘거리 한인노인회도 다른 모든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금년들어 1월에 정기총회로 한번 모인 후 예기치 못 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더 이상 전체 회원들이 모여 보지 못 했다. 한 달에 한 번씩 100여명이 되는 동료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점심식사도 즐기고 오락, 게임도 해오던 예년과 달리 아예 전체 모임을 갖을 수 없으니 회원 한 분, 한 분도 똑 같은 심정이겠지만 봉사자라는 감투를 쓰고 있는 임원들의 마음도 초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그 동안 월례 회동에서 점심 비용으로 지출되지 않은 노인회 재정은 그대로 잘 보관되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물러가고 좋은 시기가 돌아오면 우리 회원들 모두 멋지게 단체 관광을 다녀 오자고 임원들도 손 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알려드리는 2020년 회비 납부자 명단은 참고로 알려드리는 것 뿐이니 행여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2020년 회비 납부자	(2020 10월 8일현재)	년540
강경현 강대욱 강대원 강문필 강박영 강욱자 경규철 고상희	*****	
김규용 김금제 김기문 김덕수 김무환 김문경 김민식 김복미 김선숙		
김옥희 김용미 김주송 김지식 김지향 김화선 김한태 김혜경	*****	
남궁창 남현규 노우남 마민권 문경자 문누사 문정희 문평길 민경옥		
방명자 박인숙 박정지 변성용 서경희 서병희 서정범 선우정찬		
성성신 성애경 송명석 송영순 심상희 안길웅 안숙희 안은경	*****	
안희정 양재철 염선애 염승호 연형모 오길성 오세준 오영식	*****	
오윤경 유정순 윤명희 윤승룡 윤신성 이경자 이근홍 이기용 이덕홍		
이리오 이만수 이말수 이명원 이명자 이명희 이민수 이보영	*****	
이봉우 이석철 이영순 이영옥 이영현 이옥희 이우식 이일구	*****	
이재희 이정배 이정옥 이정희 이지영 이희진 임미자 임미향	*****	
임순례 장진선 전광숙 전이순 전인숙 정광희 정무일 정은주	*****	
정용자 조원자 조현주 지신자 진규일 차광준 차중숙 천화자	*****	
최동철 최병기 최순옥 최양숙 최정희 허영숙 호문자 홍중선	*****	
홍한숙 황동일 황양호	*****	
조정규	\$100 (후원금)	

캘거리에서도 한인 전용 양로원 건립에 지대한 관심들을 갖고 있다. 그렇게 건립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려만 그것은 캐나다 정부의 근간을 이루는 복합문화, Multiculturalism에 엇박자를 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캘거리 거주 우리 동포 수효가 10,000 명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양로원에 입주할 연령대에 이르신 분들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그렇다고 소위 캐네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

편집자주: 캘거리에서 거주하는 교우 한 명이 며칠 전부터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멀리 태평양 건너에서 무엇인가 착심한 듯 겁도 없이 이런 글을 보내 왔습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은 세 차례 정도 읽으면서 묵상해 보시다.

사람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은 거의 모두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수

중에 돈만 있으면 인생이 행복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생존의 욕구, 자존심에 대한 욕구, 변영에 대한 욕구, 명예 욕구, 등...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욕구들이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나 또 교회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나 성도

가 더 위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은혜로 만족하고살자고 하면서도 교인 끌어 모으기에 혈안이 되고 현금 모으기에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은 모두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거룩한 것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세우는 신앙의 모델들도 모두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도 많이 하고 현금 많이 한 사람, 봉사 많이 한 이런 사

람을 신앙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받받아 우리도 전도하고 현금많이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신앙의 본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가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이 땅에 영원히 남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머지는 다 타버리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

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지 주일에 한 번 종교 행위 원하셔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첫째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활용해서 성도 간에 화목케 하고 그들을 돕는 선한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서로가 도와주며 협력하는 중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되기 소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기록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기록할지니라. 기록된바 내가 기록하니 너희도 기록하라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15-16)

2020. 10. 9. -살롬- 예수님 사랑합니다.